aT, 폴란드·스웨덴 농식품 시장 공략

세일즈 로드쇼…김치·유자차 등 가정 간편식품 선봬
41개 국내 업체 유럽·아시아 파견 新판로 개척 기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폴란드·스웨덴에서 세일즈 로드쇼를 열고 현지 수입 바이어들에게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7일 "지난달 23-28일 한국 농식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폴란드와 스웨덴에서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T는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목표로 8개 전략국가를 선정해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41개사를 유럽, 아시아 등으로 파견하고 국내 농식품 수출시장을 넓혀갈 계획이다.

폴란드-스웨덴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에서는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11개사가 참가해 김치, 유자차, 오미자청 등과 같은 대표적인 한국식품 뿐만 아니라 현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가정간편식품(HMR)에 이르는 다양한 한국식품을 현지 바이어에게 선보였다.

폴란드는 유럽 중앙에 위치해 중동부 유럽 및 북유럽까지 시장 접근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건강, 웰빙 트렌드 확산 등 식품시장 성장률이 높아 지난해에 이어 유럽권역의 최우선 전략국가로 선정됐다.

이번 세일즈 로드쇼를 통해 폴란드 전역에 유통채널을 가진 수입상, 식품 제조사 등 15개사가 초청돼 70여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총 235만달러 상당의 상담 실적이 있었고 향후 수출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폴란드 세일즈 로드쇼에 참여한 수입 바이어인 쿠흐니 스비아타(Kuchnie Swiata)의 다리우즈 리터(Dariusz Richter)氏는 "에스닉 음식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관심이 일식과 동남아식에서 이제 한식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폴란드 시장에서 한국식품의 유망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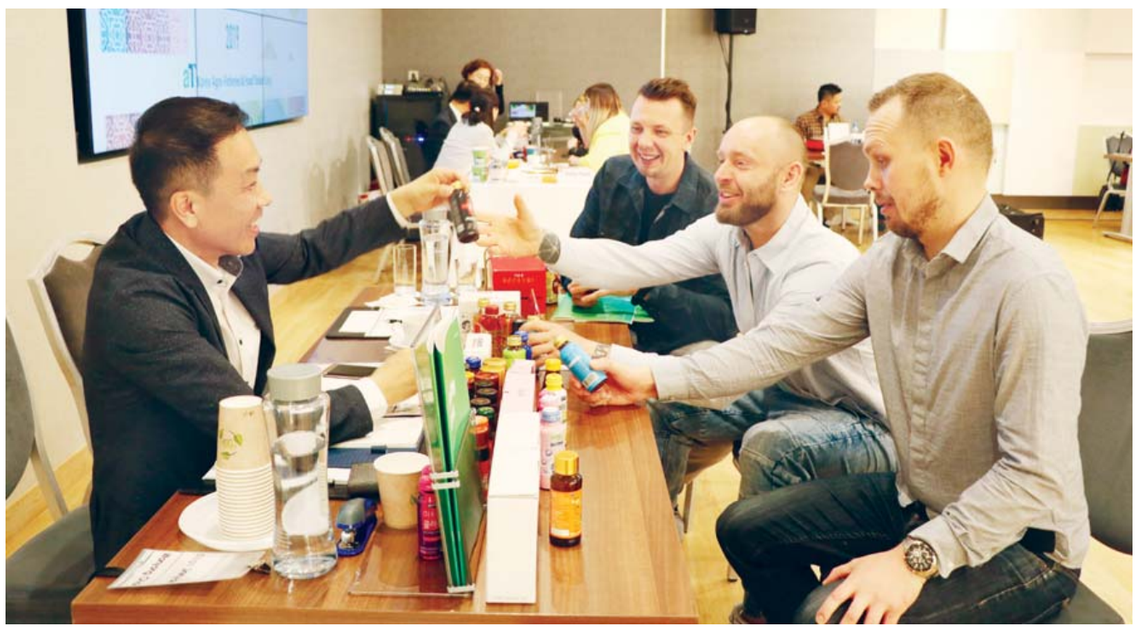
스웨덴은 지난해 기준 1인당 GDP가 5만4천달러로 소비자 구매력이 높으나 춥고 척박한 지리적 특성으로 요리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다.

또한 수입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최근 아시아식품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농식품의 북유럽 시장 진출 문을 열어 줄 시장으로 평가된다.

현지 수입상 등 7개사가 초청돼 39여건의 상담을 통해 총 345만달러 상당의 수출상담 실적이 있었고 향후 수출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웨덴 세일즈 로드쇼에 참여한 수입 바이어는 "아직은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시장 진출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참가 제품들은 새롭고 건강하고 기능성까지 겸비해 스웨덴 소비자의 관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식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비록 한국 농식품 수출의 유럽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지만 현지인들에게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겠다"며 "신규 거래를 알선하기 위해 현지에서 발로 뛰는 농식품 청년개척단과 이번 세일즈로드쇼에 참여한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의 협업이 신규시장 개척이라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한국 농식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폴란드와 스웨덴에서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를 개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권경영 선언식

인권규범 존중·지지 등 실천 다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 이하 KCA)은 최근 나주 본원에서 '인권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선언식은 KCA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주요사업 고객, 협력업체,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경영활동에 대한 인권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KCA는 형식적인 선언식 진행을 탈피하고 전 직원의 실천의지와 실질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권나무에 희망 잎사귀를 부착하는 인권향상 캠페인를 실시했다. 또한 지방본부장들이 순차적으로 선언문을 낭독하는 동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KCA는 선언식에서 ▲인권규범 존중 및 지지 ▲인권침해 사전예방 및 구제노력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역 등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보장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이해관계자 인권경영 지원 ▲현지주민 인권보호 ▲환경보호 ▲고객 인권보호 등을 선언하고 인권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김동수기자

한콘진, 예비창업자 육성 잰걸음

'콘텐츠 스타트업' 20팀 선정…최대 2천500만원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상현실, O2O 플랫폼, 지식서비스 등 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이끌 예비창업자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은 7일 "최근 창업발전소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를 통해 국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20팀을 선정, 8일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마감한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에는 250여팀의 지원자가 몰려 콘텐츠 분야 창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 중 '넥스트어스(NextUs)'의 소방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 개선을 돕기 위한 VR 치료 콘텐츠, '삶이 오다'의 시니어 세대 음성 콘텐츠 플랫폼, 'Parkinglot Game Studio'의 기초 화학과 원소를 소재로 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퍼즐 게임 등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20팀이 선정됐다.

선정 팀은 이달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최대 2천500만원의 창업지원금을 비롯해 CKL 기업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한 분야별 컨설팅, 세미나, 네트워킹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특히 한콘진은 CKL 기업지원센터에 콘텐츠 창작자들이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창작자 지원시설을 지난 1일 새롭게 오픈했다.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 참가팀뿐만 아니라 일반 창작자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창작자 지원시설은 CKL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venture.ckl.or.kr)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김동수기자

광주·전남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
aT, 17일까지…최대 2천만원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7일 "오는 17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광주전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공모 주제는 결식아동 지원, 소외계층 복지 증진, 농어촌지역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사회공헌 협업 등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관에게 응모자격이 주어진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 운영 기관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양식은 a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동수기자

농어촌公, 용수확보·수질관리 개선 박차

영광서 통수식…전국 27개소 875만t 목표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수확보·수질관리 개선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7일 "최근 영광군 불갑저수지에서 지역자치단체장과 농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풍년농사와 안전영농을 기원하는 통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농기 이후 전국적으로 강수량 부족으로 심각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남지역의 경우 평균 저수율이 40%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공사는 하천수를 끌어올려 담수하는 저수지 물채우기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선제적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사는 전남 7개소를 비롯한 전국 27개소에서 875만t 확보를 목표로 기존 양수시설과 함께 신설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전남지역 평균 저수율은 82%까지 확보한 상태다. 이는 평년 대비 114% 수준이지만 공사는 일부 평균저수율에 이르지 못한 도서지역도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용수확보 노력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김인식 사장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데 전 직원이 긴장의 끊을 놓지 않고 수자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연례적 가뭄에 대비해 용수확보를 위한 단기대책과 함께 권역별 수계연결사업과 수리시설개보수 등 장기대책도 집중 실행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취임 이후 전국 8개 지역본부의 맑은 물 공급사업, 다목적용 수개발사업, 수질개선사업, 물길잇기사업 등 현장을 방문하며 현장 직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맞춤형 물관리 방안을 모색했으며 앞으로도 수질관리·용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수기자

한전KDN, 장애인 고용신뢰 '트루컴퍼니' 은상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올해 장애인 고용신뢰기업 '트루컴퍼니' 은상을 수상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트루컴퍼니' 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 증진 협약 체결 후 협약사항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장애인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대해 수여하는 상으로,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고용유지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한전KDN은 지난해 고용 증진 협약 체결 이후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초과 달성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양한 직무 발굴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김동수기자